



박소현의 섹.시.토크

A아파트 105동에서 교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은 밤 11시가 넘어가던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가장 늦은 귀가를 기다리며 드라마를 보다가, 누군가는 인터넷 맞고를 치다 그 소리를 들었고, 또 누군가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놀라서 깨어났다.

소리였던 것이다. 소리는 20분이 지나도록 계속되었다. 어디 모텔촌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교성이 오페라처럼 흘러나왔으니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가는 TV 볼륨을 낮추었고, 누군가는 스피커 소리를 죽였고, 또 누군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경찰에 신고 하기 위해 창문을 열어젖혀 진원지를 파악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를 무색케하는 교성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낸 엄마들이 서둘러 한 집으로 몰려갔다. 티타임을 빙자한 수다 떨기의 주제는 단연 어제 밤의 교성이었다.

“아파트 105동에서 교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은 밤 11시가 넘어가던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가장 늦은 귀가를 기다리며 드라마를 보다가, 누군가는 인터넷 맞고를 치다 그 소리를 들었고, 또 누군가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놀라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어느 집에 강도가 든 게 아닌가 싶었다. 그만큼 소리는 날카롭고 위협하게 느껴졌다.”

“아파트에서 그렇게 교성을 지른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성토했면서도 그 잘못과 무례의 이득을 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정말 미친 사람 아냐? 아파트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그러게,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내가 계단까지 나가서 들어본걸. 우리는 아니고, 5,6호 라인 같은데?”, “우리 쪽도 아냐. 지난번 욕실에서 굉장했던 902호 아닐까?”, “아까 802호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던데?”

“아파트 한밤의 교성 소음 아닌 자극으로 ‘덕분에 모처럼 남편과...’ ‘어머, 우리도 했는데’

“저기 있잖아. 이런 이야기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실은 어제 그 소리 덕분에 남편이랑 오랜만에 잠자리 한 거 있지.”, “어머, 우리도 했는데.”, “실은 우리도...”

“아파트에서 그렇게 교성을 지른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성토했면서도 그 잘못과 무례의 이득을 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자극 없는 관계, 브랜드 아파트처럼 외관상 보기 좋은 부부지만 실상은 뜨거움도 설렘도 없었던 부부들에게 어젯밤 울려 퍼진 원시적인 비명이 오랜만에 감춰진 본성을 자극해 준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맞아, 아파트값 떨어지겠다.”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만화에 이어 영화, 그리고 다시 드라마로 재탄생한 작품들이 이번 주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배우 김혜수의 정마담 연기가 돋보였던 영화 타짜가 이번에는 드라마로 안방을 찾는다.

과의 잠실경기에 결장하는 등 사건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유로 2008도 축구팬들의 성원을 입고 인기 검색어에 등극했다. 지난 8일 시작된 유로 2008의 8강 주인공이 속속 가려지면서 잠을 잊은 올빼미 축구팬들의 흥미가 더해지고 있다.

유로 2008이 인기를 끌면서 러시아를 8강에 진출시킨 히딩크 감독과 네덜란드·이탈리아·프랑스·루마니아가 한 조에 속한 ‘죽음의 조’도 덩달아 인기 검색어로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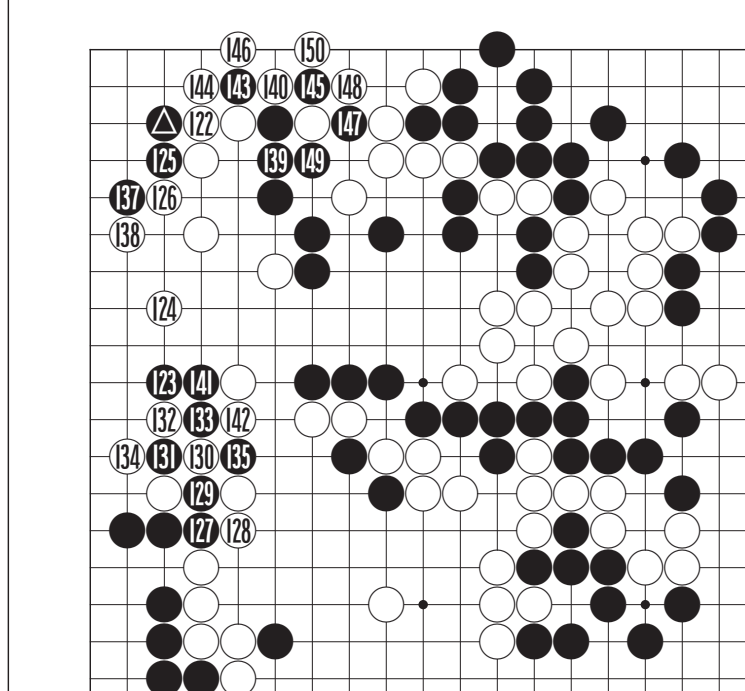


식객에서 성찬역을 맡아 호평받고 있는 배우 김래원.

드라마로 재탄생한 ‘식객’ 열풍

프로야구 SK와이번스는 육설 파문으로 네티즌의 도마 위에 올랐다. 파문이 확산되자 SK는 사건의 당사자 윤길현을 2군으로 강등시킨 데 이어, 19일 김성근 감독이 육설 파문의 책임을 지고 두산

과의 잠실경기에 결장하는 등 사건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유로 2008도 축구팬들의 성원을 입고 인기 검색어에 등극했다. 지난 8일 시작된 유로 2008의 8강 주인공이 속속 가려지면서 잠을 잊은 올빼미 축구팬들의 흥미가 더해지고 있다.



세17일 光日盃

때늦은 좌충우돌 2회전 2국 6보(121~150) 白 김광식 5단 黑 표정채 5단 (주 송림) (빛고를 교사회)

이미 집으로 가는 흑이 많이 부족함 형세로 좌상귀에 흑 ▲로 쳐들어간 수가 최후의 희망이다. 그런데 ▲로는 먼저 ‘참고도1’의 흑 1로 들어다 보는 수가 좋았다.

실전은 백 22로 받아서 패가 나는 정도 로 이 정도로는 전혀 승산이 없다. 표정채 5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흑 123부터 149까지 좌충우돌하며 수단을 강구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김광식 5단의 침통같은 수비를 뚫을 수는 없었다.

바둑소식

물가정보매 결선진출자 확정

이창호 9단과 이세돌 9단이 18일 열린 제4기 한국물가정보매 프리기전 본선리그에서 각각 백흑색 6단과 감지성 7단을 물리쳤다. 이로써 8명의 결선진출자 명단이 확정됐다.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186> Is Mary still going out with John? 메리가 아직도 존하고 사귀니? A: Is Mary still going out with John? B: No, they broke up a couple of weeks ago.

오하오우 니혼고 <1186> そこを、だめもとで言ってみるのよ。 그 점은, 밀쳐봐야 본전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A: おっ、木村さん今日の服、素敵(すてき)だ。

니하오 쑹구위 <163> 现在几点? 지금 몇 시야? A: 现在几点? Xiànzài jǐ diǎn? B: 现在五点四十五分。 Xiànzài wǔ diǎn sì shí wǔ fēn.

한자 이야기 <803> 貧者一燈(빈자일등) 가난한 빈, 사람 자, 한 일, 등불 등 빈자일등(貧者一燈)은 가난한 사람이 밝힌 하나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의 자선(慈善)은 부자의 자선보다 훨씬 가치가 있음을 비유한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0일(음 5월 17일 辛卯) 子 36년생 흉은 가고 길사가 도래 한다. 48년생 남-여 간에 이성이 빠질 수 있으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60년생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